

KOCHAM

Economic Briefing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Inc

2014년 6월 4일(수)

【 미국 경제 동향 】

- 1) 5월 중 민간고용 17만 9천명, 전망하회
- 2) 미 무역적자 2년만에 최대

【 해외 경제 동향 】

- 1) 중국 증시, 주식물량 증가 부담에 나흘째 하락
- 2)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 3) ECB, 미국 '규제 리스크' 대책 마련 중

【 산업·시장 동향 】

- 1) 일본의 다이이치생명보험, 미국 프로텍티브생명보험 인수
- 2) 페이스북, 핀란드 '프라이트' 인수

【 미국 경제 동향 】

1) 5월 중 민간고용 17만 9천명, 전망하회

- 지난 4일 ADP는 5월 중 민간고용이 17만 9천명 증가했다고 발표
 - 다만, 금번 결과는 전문가 예상치 21만명 증가를 하회, 전월 기록인 21만 5천명도 하회하는 결과
- 세부항목별로는 전월 서비스업 부문의 신규 고용자 수는 15만명 증가, 제품 생산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2만 9천명 증가
- 전문가들은 민간 부문의 고용지표가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미 노동부의 전월 고용보고서 역시 저조할 것이라고 지적
- 한편, 전문가들은 오는 6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중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를 21만 5천명으로 예상, 이는 전월비 7만 3천명 감소한 수치

2) 미 무역적자 2년만에 최대

- 지난 4일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472억달러로 전월 442억달러보다 6.9% 증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
- 4월 중 수출은 1천 933억달러로 전월(1천 937억달러)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수입은 2천 406억달러로 전월대비 1.2% 증가
 - 3월 적자 규모도 기존 발표한 404억 달러에서 442억 달러로 대폭 상향수정
- 전문가들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세계 경제는 점진적인 속도로 성장하면서 수출은 그리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 해외 경제 동향 】

1) 중국 증시, 주식물량 증가 부담에 나홀재 하락

- 4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3.47p(0.66%) 하락한 2024.83, 선전성분지수는 98.39p(1.34%) 하락한 7223.13으로 각각 마감
 - 특히 무역, 비철금속, 전기, 부동산 업종이 크게 하락
-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유통금지 해제와 IPO로 주식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나홀재 하락했다고 분석
 - 증권감독 당국이 IPO 신청 기업을 추가로 발표해 예비 상장기업이 모두 437개로 늘어난 것이 주식거래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
 - 이달 중 유통 금지가 풀리는 주식 물량이 시가총액 기준 1606억 위안으로 최근들어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
- 한편, 중국 외환교역센터는 이날 1달러당 위안화 기준가격을 전날보다 0.0017위안 내린 6.1693위안으로 고시,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소폭 하락

2)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 지난 3일 유럽통계청은 유로존의 5월 중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0.5% 상승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예상치 평균 0.7%보다 0.2%p 낮은 수준
- 한편,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라 5일 열리는 6월 통화정책회

의에서 유럽중앙은행이 은행들의 예치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이 대규모 국채 매입과 같은 양적완화정책을 취할 가능성 낮다고 분석
 - 유로존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양적완화 정책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유로존 주요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

3) ECB, 미국 ‘규제 리스크’ 대책 마련 중

- 지난 3일 WSJ은 최근 미 정부가 유로존 대형은행에 벌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 유럽중앙은행(ECB)이 대책을 모색중이라고 보도
 - ECB와 유럽은행감독청(EBA)이 124개 대형은행들에 대해 진행 중인 재무건전성평가에 규제 관련 과징금이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가 추가될 전망
- 전문가들은 ECB의 이런 대응이 프랑스 BNP 파리바 은행이 미국의 대(對) 이란 경제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란 사실이 알려진 것과 때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분석
- 한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테스트항목에 포함되는 새로운 요소로 유럽 은행들은 추가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
 - 이에, 일각에서는 ‘신용 리스크’가 아닌 ‘규제 리스크’가 유럽 은행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음

【 산업·시장 동향 】

1) 일본의 다이이치생명보험, 미국 프로텍티브생명보험 인수

- 지난 4일 일본 2위 생명보험사 다이이치생명은 미국 프로텍티브생명보험을 인수하는 데 양사가 합의했다고 발표
 - 인수 금액은 5822억엔으로 일본 생명보험사가 외국 기업을 인수한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로 양사는 미·일 금융당국에서 승인을 얻어 내년 1월까지 인수 작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
- 전문가들은 다이이치생명이 이번에 미국 보험사 인수에 나선 것은 세계 최대 규모 보험시장에서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
 - 한편, 다이이치생명은 이번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2500억엔 규모 공모증자를 실시할 예정

2) 페이스북, 핀란드 ‘프라이트’ 인수

- 지난 3일 핀란드 모바일 데이터 스타트업 기업인 프라이트는 페이스북이 프라이트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
- 프라이트는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때 임시 모바일 데이터를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 특히 이동통신요금이 부담스러운 신흥국 사용자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보유
-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는 페이스북이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